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 응집성이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미예¹ · 임지영² · 그레이스정³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²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과, ³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Effects of Korean Proficiency and Parent-child Cohesion o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im, Mi Ye¹ · Lim, Ji Young² · Chung, Grace H.³

¹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²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³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re is evidence that parent-child cohesion is a potentially influential factor in children's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However, no research to date has examined cohesion with parents as a potential pathway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self-esteem or accultur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as done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by examin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cohesion with parents mediated the effect of Korean proficiency o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138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Seoul, Daegu, Kyungi province, and Kyungpook provi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interest. Mediation effects of cohesion with parents were tested by following the procedure recommended by Baron and Kenny (1986). **Results:** Cohesion with parent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self-esteem. For children's acculturation, the effect of Korean proficiency was partially mediated through father-child cohesion. Mother-child cohes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help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self-esteem or acculturation, it might be useful to develop programs that are aimed at strengthen cohesion with parents.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Children; Family; Parent-child relations;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ccultur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외국인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및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다

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011년 현재 외국인 주민 전체의 약 11.9%인 총 15만 2천여 명으로 2006년의 2만 5천명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2011). 이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인 만 6세 미만인 경우 93,537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61.9%, 초등학교인 만 7-12세

주요어: 다문화, 아동, 가족, 부모-자녀 관계, 언어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0.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New Faculty Research Settlement Gra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im, Ji Young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1 Fax: +82-53-950-6209 E-mail: limj@knu.ac.kr

투고일: 2012년 3월 15일 심사회의일: 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16일

는 37,590명으로 24.9%, 만 13세부터 18세는 20,027명으로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MOPAS), 향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는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의사소통의 문제 및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위험 상황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Jeong, 2009; Koo, 2009; Lee, 2008).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한국인 부모를 둔 또래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이에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중심에 사회·경제적 환경이외에 언어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언어능력과 연관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의 한국 학생만큼 한국어를 구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적응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 것이다(Won, 2009).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주로 언어능력과 학습능력 혹은 인지발달 간의 연결성을 찾는데 치중하여(Yoo, Kim, Kim, & Shin,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학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간과하여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유발하게 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사용의 실패가 다문화가정 자녀로 하여금 좌절과 위축을 경험하게 하므로 학업 성취 이외에도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한국문화적응과 같은 중요한 발달적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ujiki, Spackman, Brinton, & Hall, 2004; McCabe & Meller, 2004).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양육태도를 경험하게 되어 학교 교육을 경험하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러한 문화적 혼재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야기한다(Jeong, 2009).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평가로 정의되는 자아존중감(Harter, 1982)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재조정되며, 특히 부모나 교사, 친구 등의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낮은 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Koo, 2009; Kweon, Lee, & Jeon, 2010).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Park (2010)은 자녀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발견하였지만, 자녀 자신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문화적응 또한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장기간 접촉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 혹은 변화과정이며, 문화에 대한 통합과 차별화의 과정을 통해 가치체계의 선택적 수용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Berry, 1997).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매우 특수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Shin & Youn, 2010), 그들의 낮은 언어능력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Nho & Hong, 2006). 게다가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응 정도가 그들의 만족감,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및 비행 등과 같은 행동 문제 지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미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어(Kim, Cain, & McCubbin, 2006),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해서는 어머니의 한국문화적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Kwak, 2008),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아동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고(Yang et al., 2012), 자녀의 한국문화적응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수행된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언어능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제한점을 보완하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그나마 수행되었던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을 일반 한국 가정의 아동들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았을 뿐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적응 기제를 설명하려 한 시도는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국외연구에서 주목받아왔던 부모-자녀 간 응집성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보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그동안 Rumbaut (1997), De Ross, Marrinan, Schattner와 Gullone (Kim et al., 2006에 인용됨) 등 국외 연구들에서는 가족 응집성 혹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민자 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는 매우 중

요한 요인임을 밝혀왔다. 즉,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전기지로 작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면서(Kwak, 2008) 그들의 적응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한국가정 아동 관련 연구들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ark, Moon, & Yang, 2002),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관계 특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예를 들면, Park (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질과 그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아버지-자녀 혹은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행된 한국가정 아동 관련 연구들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2). 가족응집성, 의사소통양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본 Koh (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과 Baik (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지지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Park (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질과 그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응집성은 주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 언급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 특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 아버지-자녀 혹은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다. 이는 현재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에서 포함된 부모 관련 변인들이 주로 교육수준이나 부모의 언어능력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어머니 변인에 관한 연구들만이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Oh & Song, 2009; Pae, Kwak, Kim, Jung, & Kim, 2009), 다문화가정 아버지가 그들 자녀의 적응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갖는 언어적 혹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기 자녀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각각 형성하는 관계의 특성 및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및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아동에

게 끼치는 영향을 따로 분리해서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자녀의 적응에 있어 부모-자녀 간 관계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하는가를 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와의 응집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언어능력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으므로 아동의 언어능력, 부모-자녀 간 응집성,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을 아우르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는 미취학 자녀가 대다수이지만 앞으로 연령이 증가하여 이들이 학령기에 들어서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 측면에 그치고 있거나 소수의 사례 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은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연구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초등학교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이 가족교육프로그램이나 개입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 간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Figure 1).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부모-자녀 응집성(아버지와와의 응집성,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는 부모-자녀 응집성(아버지와와의 응집성,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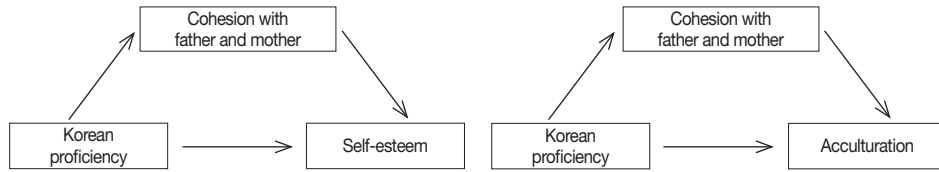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mediating effect).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탐색적 조사연구로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다중회귀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다문화가정 아동이다. 학령기 아동 중 3학년 미만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질문지 문항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나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편의 표집에 의해 추출되었으며, 201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및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 13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3 program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 변수 2개일 때 107명으로 결정되어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분석을 위해 충분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및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IRB No. 1004/001-002).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연구의 무해성,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참여를 원하는 아동에게만 배부하였으며, 어머니에게는 동의서를 함께 배부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설문에 응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사례하였다.

4. 연구 도구

1) 언어능력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였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된 한국어 실력 평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로 나누어서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 부모와의 응집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부모와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Sprenkle와 Russell (1979)이 개발한 가족 적응 및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FACES II) 중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을 평가하는 10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이중언어자이면서 가족학 전공 교수가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파악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응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각각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lson 등의 연구에서 응집성 문항의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경우 .75,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경우 .68이었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rter (1982)가 개발한 자기유능감 척도 중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7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이중언어자이면서 가족학 전공 교수가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파악하고 내용타당도도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rter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연구 대상에 따라 .73에서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4) 한국문화적응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문화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Nho와 Hong (2006)이 구성한 이중문화태도평가척도 중 한국문화적응에 해당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적 동화 혹은 문화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Shin & Youn, 2010)에서 자주 사용되어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이미 검증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고 문화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Shin과 Youn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5.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조사를 수행하기 전 연구 대상인 아동이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응답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3월에 남아, 여아 각각 5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 시 발견된 의미가 애매한 어휘를 수정하는 등 질문지를 보완하여 2010년 5월에 본 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다문화 아동,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나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와의 응집성이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언어능력과 각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세 단계의 회귀방정식 절차를 따랐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서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거나(부분매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지(완전매개)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sobel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의 산포도를 확인하여 특이값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의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상관계수들이 .24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모두 1.06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0-2.3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은 입력(enter)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인 다문화 아동의 평균 연령은 9.3 ± 0.57 이었고, 여아는 55.1%, 남아는 44.9%이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용 설문지에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 3, 4학년년에 해당하며, 연령에 따른 빈도는 구체적으로 만 9세 이하 65.3%, 10세 29.7%, 11세 1.4% 그리고 무응답 3.6%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0 ± 4.50 , 아버지는 43.6 ± 4.24 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50.7%; 이혼 1.4%, 사별 0.7%, 동거 0.7%).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은 무응답(57.2%)과 잘 모른다고 응답한 수를 제외하면(10.1%), 2,400만원 이하(18.8%), 2,400-7,400만원(13.0%), 그리고 7,400만원 이상(0.7%) 순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34.1%), 중졸(8.0%), 대졸(3.6%), 초졸(3.60%), 대학원 이상(1.4%), 그리고 무학(0.7%) 순이었으며(무응답 48.6%),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23.2%), 대졸(22.5%), 중졸(8.0%), 대학원 이상(1.4%) 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44.9%). 한편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의 평균은 3.65 ± 0.61 이었으며, 아버지와의 응집성은 3.37 ± 0.71 ,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3.73 ± 0.64 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69 ± 0.93 , 한국문화적응은 3.26 ± 0.62 로 나타났다.

2.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 본 결과,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r = .34, p < .001$) 및 한국문화적응($r = .24, p = .007$)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버지

와의 응집성($r=.24, p=.007$) 및 어머니와의 응집성($r=.22, p=.013$)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의 응집성 및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모두 자아존중감($r=.29, p=.001$; $r=.37, p<.001$) 및 문화적응($r=.31, p<.001$; $r=.4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2 (44.9)
	Female	76 (55.1)
Age (year)	≤ 9	90 (65.3)
	10	41 (29.7)
	11	2 (1.4)
	Missing	5 (3.6)
Father's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1 (0.7)
	Elementary school	5 (3.6)
	Middle school	11 (8.0)
	High school	47 (34.1)
	College	5 (3.6)
	Graduate school	2 (1.4)
	Missing	67 (48.6)
Mother's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0 (0.0)
	Elementary school	0 (0.0)
	Middle school	11 (8.0)
	High school	32 (23.2)
	College	31 (22.5)
	Graduate school	2 (1.4)
	Missing	62 (44.9)
Marital status	Married	70 (50.7)
	Cohabitation	1 (0.7)
	Divorced	2 (1.4)
	Widowed	1 (0.7)
	Missing	64 (46.4)
Year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 2,400	26 (18.8)
	2,400 - 7,400	18 (13.0)
	> 7,400	1 (0.7)
	Don't know	14 (10.1)
	Missing	79 (57.2)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모와의 응집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먼저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인 아버지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4, p=.007$), 2단계에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 p<.001$).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어능력($\beta=.29, p=.001$)과 아버지와의 응집성($\beta=.21, p=.014$) 모두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계와 비교하여 언어능력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즉, 3단계에서 언어능력의 β 값(.29)이 2단계에서의 β 값(.34)보다 작으므로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17, p=.029$).

또한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2),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2, p=.013$), 2단계에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 p<.001$).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어능력($\beta=.28, p=.001$)과 어머니와의 응집성($\beta=.29, p=.001$) 모두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계와 비교하여 언어능력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즉, 3단계에서 언어능력의 β 값(.28)이 2단계에서의 β 값(.34)보다 작으므로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Z=2.21, p=.027$).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Self-esteem ($N=138$)

Variables	B	SE	β (p)	F (p)	R ²	Adj. R ²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father	0.27	0.10	.24 (.007)	7.61 (.007)	.06	.05
2. Korean proficiency → Self-esteem	0.49	0.12	.34 (<.001)	16.42 (<.001)	.11	.11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father → Self-esteem	0.43 0.27	0.12 0.11	.29 (.001) .21 (.014)	11.68 (<.001)	.16	.14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mother	0.22	0.09	.22 (.013)	6.39 (.013)	.05	.04
2. Korean proficiency → Self-esteem	0.49	0.12	.34 (<.001)	16.42 (<.001)	.11	.11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mother → Self-esteem	0.40 0.41	0.12 0.12	.28 (.001) .29 (.001)	15.12 (<.001)	.19	.18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모와의 응집성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

다문화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먼저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3),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인 아버지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4, p = .007$), 2단계에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07$).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어능력($\beta = .17, p = .047$)과 아버지와의 응집성($\beta = .24, p = .006$) 모두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계와 비교하여 언어능력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즉, 3단계에서 언어능력의 β 값(.17)이 2단계에서의 β 값(.24)보다 작으므로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Z = 2.21, p = .026$).

또한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3),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2, p = .013$), 2단계에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07$).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머니와의 응집성($\beta = .38, p < .001$)만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언

어능력($\beta = .16, p = .056$)은 더 이상 한국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어머니와의 응집성이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Z = 2.29, p = .022$).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언어능력과 관계 파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보호요인, 특히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언어능력은 아버지 모델에서만 아니라 어머니 모델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00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Yoon (2011)의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학업능력 이외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적 적응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즉 응집성은 주요 매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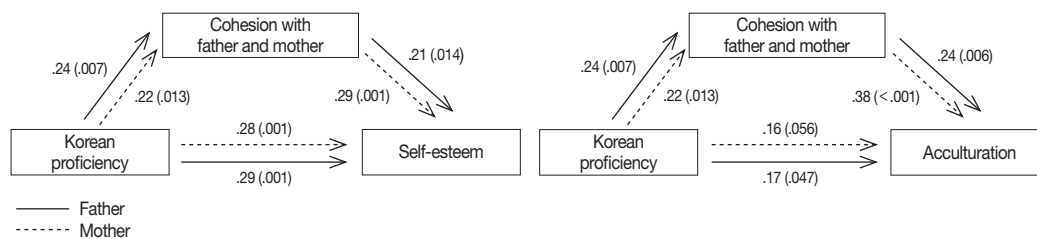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N = 138$)

Variables	B	SE	β (p)	F (p)	R ²	Adj. R ²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father	0.27	0.10	.24 (.007)	7.61 (.007)	.06	.05
2. Korean proficiency → Acculturation	0.22	0.08	.24 (.007)	7.60 (.007)	.06	.05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father → Acculturation	0.17 0.20	0.08 0.07	.17 (.047) .24 (.006)	7.62 (.001)	.11	.10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mother	0.22	0.09	.22 (.013)	6.39 (.013)	.05	.04
2. Korean proficiency → Acculturation	0.22	0.08	.24 (.007)	7.60 (.007)	.06	.05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mother → Acculturation	0.15 0.35	0.08 0.08	.16 (.056) .38 (<.001)	15.15 (<.001)	.20	.18

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가족응집성이 이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한다는 De Ross 등(Kim et al., 2006에 인용됨)의 국외선행연구 및 가족응집성, 의사소통양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본 Koh (2010)의 국내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였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과 Baik (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부모와의 응집성은 주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 타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어 긍정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가져온다(Park, 2003). 따라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이들에게 안전기반(secure base)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게 한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응집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필수적인 기제로 작용하며, 이주아동이든 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든 간에 언어상의 문제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중요한 타자 즉,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부-자녀관계의 친밀성 증진을 중심으로 더 집중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한국문화적응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응집성은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부분매개 역할을, 그리고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언어능력, 아버지와의 응집성, 그리고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는 언어능력이 한국문화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국인인 아버지와의 응집성을 향상시켜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 모델에 있어서는 자녀의 언어능력이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한국문화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 이주 아동의 적응이 부모 모두와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모 양쪽의 지지 및 애정적인 태도가 문화적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Cauce, Reid, Ramey, & Gonzales, 1990; Kim et al., 2006)를 지지한다.

물론 이주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Cauce et al., 1990)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인종적 배경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와 상황이 다를 수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언어능력, 부모와의 응집성,

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던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아버지와의 응집성은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 역할을 그리고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인종적 배경이 다른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있어서 내국인이 아닌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것은 국내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유아기를 넘어서 아동기에 까지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어 교육 혹은 한국어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획일적 문화적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부-자녀 관계 및 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선행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아동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응집성이 주요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줌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응집성, 특히 부-자녀 및 모-자녀 응집성과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개입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전체를 위한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 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아동 아버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와의 응집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언어능력 등 위험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설명하려고 했을 뿐 보호요인의 규명을 통해 실제로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가정되어왔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와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 주어 향후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 핵심 구성요소로서 이를 포함해야 함을 요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전국적 규모

의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있어 언어능력과 부모와의 응집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에만 국한시켜 연구를 수행하였고, 설명 변수로 언어능력과 부모와의 응집성의 역할에만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을 넘어서 적응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 연구해 보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은 발달시기별로 서로 상이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 또는 유아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한국문화적응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요인들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와의 응집성(아버지-자녀 응집성, 어머니-자녀 응집성)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적 설계를 통해 수행된 다중회귀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언어능력,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응집성,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어능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반면, 언어능력, 어머니와의 응집성,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모델에서는 언어능력이 직접적으로 한국문화적응을 설명하지는 못하였고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언어능력 이외에 부-자녀 및 모-자녀 응집성 모두를 보호요인 및 매개변인으로 고려한 최초의 연구로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를 제시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 특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34. <http://dx.doi.org/10.1111/j.1464-0597.1997.tb01087.x>
- Cauce, A., Reid, M., Ramey, S., & Gonzales, N. (1990). Social support in young children: Measurement, description, and behavioral impact.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pp. 64-94). New York: John Wiley & Sons.
- Fujiki, M., Spackman, M. P., Brinton, B., & Hall, A. (2004).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and emotion regulation skills to reticence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637-646. [http://dx.doi.org/10.1044/1092-4388\(2004/049\)](http://dx.doi.org/10.1044/1092-4388(2004/049))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Jeong, H. S. (2009). Issues and policy tasks of Korean juveniles' socialization proc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1), 279-296.
- Kim, E. J., Cain, K., & McCubbin, M. (2006).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cculturation, and young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9(3), 112-129.
- Kim, Y. R., & Kim, Y. T. (2011). Linguistic performance of Korean children from low SES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0(3), 73-88.
- Koh, M. S. (2010).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3), 195-202. <http://dx.doi.org/10.4094/jkachn.2010.16.3.195>
- Koo, H. J. (2009).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influence of language, cognitive, and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n the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at multi-cultural families in agricultural & fishing area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3), 1-21.
- Kwak, K. J. (2008).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Focus on pattern and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 Kweon, H. Y., Lee, M. S., & Jeon, B. U. (2010). The literature analysis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 Multiple Disabilities*, 53(4), 283-306.
- Lee, Y. J. (2008). Adjustments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in multi-culture families: A study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79-101.
- McCabe, P. C., & Meller, P.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social competence: How language impairment affects social growth. *Psychology in the Schools*, 41, 313-321. <http://dx.doi.org/10.1002/pits.10161>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1). *2011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Seoul: Author.
- Nam, S. A., & Baik, J. S.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

- ment, 9(1), 3-12.
- Nho, C. R., & Hong, J. J.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9.
- Oh, J. Y., & Song, M. S. (2009).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adaptive behavior in kindergarten of children from foreign mother's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251-269.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http://dx.doi.org/10.1111/j.1545-5300.1979.00003.x>
- Pae, S. Y., Kwak, K. J., Kim, K. Y., Jung, K. H., & Kim, H. J. (2009). Supporting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survey of mothers and developmental supporter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8(4), 165-184.
- Park, H. M., Moon, S. T., & Yang, J. H. (2002).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ttachment on self-esteem and learning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5(3), 113-125.
- Park, J. H. (2003). *Influence of the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on the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Park, M. S. (2010).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0(2), 193-218.
- Rumbaut, R. G. (1997). Ties that bind. In Booth, A., Crouter, A. C., & Landale N. (Eds.),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in, Y. J., & Youn, C. Y. (2010). Bicultural adjustment, peer relationship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2), 1-14.
- Won, J. S. (2009).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r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40, 158-187.
- Yang, J. H., Park, H. J., Kim, S. S., Kang, E. J., Byun, S. H., & Bang, J. S. (2012).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1), 36-47.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 Yoo, H. J., Kim, H. H., Kim, W. S., & Shin, J. C. (2008).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5(3), 133-144.
- Yoon, S. G. (2011).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elf-efficacy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